

“신천지 예배 참석자 철저히 조사”

문 대통령,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따라
“신천지 교회 정보에만
의존 말고 신속 조치 강구”

정세균 총리 “경계 단계
유지하되 ‘심각’ 수준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 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철저히 조사’ 주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신천지 교회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집계 따르면 추가 확진자 52명 중 39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이며 15명의 확진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3단

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인구비례로 볼 경우 한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각’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단다”고 보고했다.

또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자가 격리한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 총선 유세, 비대면 방식으로

민주 이원택·안호영·유희태 예비후보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 중단한다”

전북지역에서 하루
사이 두 명이
추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
증(코로나
19)이 50여
일을 앞둔
4·15 총선
운동 방식까지
바뀌고
있다.



이원택 예비후보



안호영 예비후보



유희태 예비후보

특성상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이 우선시되는 선거운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예비후보는 대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하루 전 김제지역 거주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추가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같은 당 안호영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직접 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안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면 선거운동 대신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이나 정책·공약 제시에 집중하기로 했다.

같은 당 유희태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역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주력하는 등 안전선거를 다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피켓을 들고 출퇴근 거리인사를 하는 한편 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덕진선관위, 28일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입후보 설명회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대준)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덕진 선관위 회의실(1층)에서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27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운동은 4월 2~14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가 차질없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정엽 “지방소멸위기 대응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입할 것”

임정엽 완주무주진안장수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21일 임정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와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 지역의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기준에서 초고령사회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7월 기준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 자료에 따르면 임실(34.30%), 진안(33.12%), 고창(32.56%), 순창(32.35%), 무주(32.10%), 장수(32.06%) 등의 순이며 완주군도 21.70%다. /특별취재반

노인복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WHO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41개국 1,000개 도시가 가입해 상호 교류 중(국내 12개 지자체 가입 완료)이다.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할 경우 ▲지역 밀착형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지역 산업단지 내 고령친화기업 유치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임정엽 의원은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고령자 맞춤형 대책과 함께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삶의 존엄을 위해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전북도, 도내 신천지교회 8곳 모두 폐쇄

긴급 방역 및 모임·예배는 가정예배로 조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구 신천지교회를 통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도 도내 신천지예수회 교회를 폐쇄하고 현황 파악과 함께 조치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신천지예수회는 전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도마전주교회) 등 8곳의 교회가 있으며 현재 모두 폐쇄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도내 신천지예수회는 신도 1만여 명이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예배를 진행했지만, 현재 모임과 예배는 모두 중단되고 자택에서 가정예배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신천지교회뿐 아니라 도내 종교계에도 대규모 행사 자제와 예방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송하진 지사 주재로 도내 4대 중대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지난 10일 도내 종교시설에 종교 문화행사 관련 예방수칙 준수와 참석 인원 최소화 등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부한 데 이어 21일 예방수칙 준수와 대규모 행사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전북도는 종교계 대표들의 건의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에 마스크 6만2천여 개, 손소독제 8900여 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관련 종교시설 4100여 곳이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구 신천지교회를 통한 다수의 감염환자 발생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게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종교계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도내에도 추가환자가 발생해 상황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며 “전라북도는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있는만큼 도민 여러분도 전북도를 믿고 함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